

중간고사 시즌... 학교 현장 '조마조마'

도내 중·고등학교 4월 말~5월 초 시험 실시 교육청 시험실시 따른 방역상황 점검 강화

도내 중·고등학교가 중간고사 시즌을 맞은 가운데 제주교육당국은 물론 학교마다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한 시험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교직원과 학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도내 일부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 운영되는 등 '불안한 등교'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기간 전이나 시험 도중이라도 학생이 확진 및 자가격리로 등

교중지 대상이 되면 격리 해제시까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내신 100%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중학생의 경우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할 경우 상대적으로 나머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해당 학교 역시 평가 일정을 연기하는 등 시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 학사 일정 관리에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시험기간 전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 학생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원격수업 시에는 평가를 계획대로 시

행하게 되지만, 등교수업 시에는 원격수업 전환 및 평가를 연기하거나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다수가 발생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통보 시점 과목 평가를 끝낸 후 즉시 귀가 조치되고 남은 평가 일정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정된다.

지난해에도 2학기 기말고사 시즌 12개교(중 8개교, 고 4개교)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정이 중단 및 연기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지자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3주간 '학교·학원 특별방역주간'을 운영키로 하고 중간고사 실시

에 따른 방역상황 점검도 강화하고 있다. 안전하고 원활한 학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사 시간 배정 및 고사실 분산 배치 운영, 확진자 등 발생시 조치사항, 시험일정 연기·조정 방안 등 세부적인 대응요령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기준 작성된 올해 학교 학사일정을 살펴보면 도내 중·고교 중간고사는 4월말부터 5월초까지 실시된다. 고등학교는 학교별 지난 20일부터 5월 7일 사이, 중학교는 22일부터 5월 4일 사이 예정되었다. 이 중 중학교 4곳(2학년 또는 3학년)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어제 외도 27.4℃ 기상청 "주말 예년기온"

따뜻한 남풍으로 제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다.

2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외도 27.4℃, 한림 26.2℃, 제주시 25.9℃, 애월 25.8℃, 서귀포 23.7℃ 등 6월이나 나을법한 기온이 기록됐다. 이는 제주에 따뜻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 영향을 받는 북서부지역(제주시·애월읍·한림읍)을 중심으로 기온이 올랐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부지역은 성산 22.5℃, 구좌 20.6℃, 표선 23.5℃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보였다.

기온은 주말까지 서서히 떨어져 봄 날씨를 회복하겠다. 23일 아침 최저기온은 15~17℃, 낮 최고기온은 21~22℃로 내려가겠고 24일 역시 아침 최저기온 15℃ 내외, 낮 최고기온 20~21℃를 보이겠다. 송은범기자



성씨시들목장 젖소와 관광객들 봄을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22일 제주시 한림읍 성씨시들목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방목된 젖소를 구경하고 있다.

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소송 패소 감사보고서 "토지주·건설업체 지불 규모 300억 이상"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로 버자아 그룹에 1250억원을 물어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앞으로 더 토해낼 돈이 얼마인지 가능한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그 결과 토지를 수용 당한 땅주인부터 건설업체까지 뺄어야 할 돈이 3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JDC는 최근 '2020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삼덕회계법인이 JDC(종속기업 포함)의 연결 재무제표를 감사한 내용으로, 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

일까지다.

감사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예래단지 관련이다. 예래단지는 말레이시아 화교기업인 버자아그룹이 2조5000억원을 투자해 2017년까지 서귀포시 예래동 소재 74만1000㎡ 부지에 숙박과 의료, 상가 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05년 JDC가 개발 사업 시행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실시계획을 인가 받은 뒤 2011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가 끝났다. 이후 2013년 착공이 시작됐지만, 대법원이 사업 무효를 판결하면서

2015년 7월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버자아그룹은 JD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JDC가 1250억원을 버자아그룹에 물어주는 조건으로 두 기업간 법적분쟁은 종결됐다.

하지만 토지를 수용 당한 땅주인들이 잇따라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건축사무소의 용역비 청구 등 JDC는 아직도 20건이 넘는 소송의 피고가 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감사보고서에는 "(지난해 12월 말까지) 향후 예래단지 관련 패소 가능성이 있는 소송사건에 대해 약 336억원을 법적소송충당부채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4월 23일 금요일 음 3월 12일 (4월)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30%	
60%	성산 30%	
60%	고산 30%	
60%	서귀포 30%	

주간예보

날씨	기온
흐림	15/21℃
구름 많음	14/20℃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7℃, 낮 최고기온은 21~22℃로 전망된다. 약한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지겠으나, 낮부터는 다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해돋이	05:54	달뜨기	14:47
해질	19:11	달짐	03:38
물때	만조 08:11	간조	01:36
	20:21		14:44

식중독지수 경고, 감기가능지수 낮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제주119센터는 지금 '공사 중'

지난달 노형센터 공사 시작 연동·환경은 내년 신축 추진 119 "소방수요 증가세 대비"



중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노형119센터.

제주도내 119센터들이 건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속속 공사에 들어가고 있다.

2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노형119센터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이유는 노형동을 비롯한 제주도 서부지역의 소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제주소방서(이도2동)에 있던 구조대 일부가 노형119로 옮겨지고, 도내 최대 규모인 70m 굴절사다리차를 수용하기 위해서다. 예산은 약 16억원이 투입됐고, 증축은 연면적 977.65㎡·지상 3층 규모다.

이로 인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10월까지 노형119센터는 약 2km 떨어진 해안교차로 인근에서 임시청사로 소방활동을 전개한다.

연동·환경119센터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증축이 아닌 '신축'이 추진된다.

먼저 연동119센터의 경우는 차고

지 협소 및 회전반경 장애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배치가 불가능한 데다 건물도 1981년에 지어져 도내 119센터 중 가장 노후됐다. 이에 제주소방은 사업비 33억원을 투입, 617.6㎡ 규모의 부지를 990㎡(지상 3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신축을 추진한다.

1993년에 지어진 환경119센터는 현재 규모가 523㎡로 도내 평균(776㎡)보다 253㎡ 협소함에 따라 신축이 진행된다. 규모와 사업비는 연동119센터와 동일하게 33억원이 투입되며 990㎡까지 건물 면적을 확대한다.

제주소방 관계자는 "앞으로 노후 119센터를 대상으로 증축·신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엉 사랑으로**

4월 23일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책은 (나무)에서 나옵니다.

BOOK TREE

한그루는 2008년에 제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한 그루 나무를 아끼는 마음으로,
나무에게 부끄럽지 않을 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제주의 땅과 바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새겨 듣고 전합니다.
섬의 아픈 역사와 이곳에 태를 묻고 살아온 사람들의
귀중하고 오랜 지혜가 담긴 문화자산을 한 권의 책에 담아,
누구나 지역의 이야기를 읽고 전하게 되기를 꿈꿉니다.

제주도 제주시 복지로1길 21(도남동)
전화 064-723-7580 전송 064-753-7580
누리방 onetreebook.com